

벽산페인트, 산림욕 페인트 출시

음이온과 적외선 방출로 쾌적한 환경조성 강조한 <O2plus>

벽산페인트(대표 김재우)는 천연광물 및 아크릴에멀전 수지를 사용한 고기능성 수성타입도로 <O2plus>를 개발해 2003년 10월 출시했다.

벽산페인트에 따르면, <O2plus>는 ▷음이온과 적외선 방출로 피로회복 작용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곰팡이 방지기능이 탁월하고 ▷중금속 함유량이 없어 환경친화형 수성타입이며 ▷높은 품격의 도장마감 상태를 창출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없어 상쾌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에 따라 산림욕페인트 <O2plus>는 병원, 식품공장, 음식점 등 청정환경을 요하는 곳이나 주택, 사무실, 백화점 등 환경친화형 주거환경을 요하는 곳, 그리고 기타 수성페인트 대용의 고급 도장 마감을 요하는 곳에 중점 판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벽산페인트 관계자는 “<O2plus>는 원적외선과 음이온 발생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산림욕 효과가 뛰어난 제품으로 도시의 바쁜 현대인을 위한 도료”라고 전했다.

벽산페인트는 영업이익이 2001년 12억2552만원에서 2002년 1억8382만원으로 감소하고, 경상이익은 2001년 2억3339만원에서 2002년에는 오히려 11억5788만원 손실을 기록해, 영업외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며 현재 구조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혜련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05>